

# 개혁주의적 종말론 연구

대신대학 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전공

양 춘 요

# 개혁주의적 종말론 연구

지도 조석만 교수

이 논문을 졸업연구 논문으로 제출함


1993년 12월 일

대신대학 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전공

양 춘 요

양춘요의 졸업논문으로 인준함

주 심 조석번 (인)   
부 심 \_\_\_\_\_ (인)  
부 심 \_\_\_\_\_ (인)

대신대학 신학연구원

1993년 12월 일

## 감사의 글

먼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종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늘의 위대한 과업의 도구로 사용하여 오늘날까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 나의 주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원을 수확하면서 교회 개척이라는 엄청난 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연단 속에서 부흥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졸업이라는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교회 형편 속에서도 본인의 학교 수업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해 주신 본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때부터 개혁주의적 강의로써 본인에게 올바른 신학 사상을 심어 주셨고 본 논문을 처음부터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조석만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목회자 아내로써 또한 자녀의 엄마로써 힘들다 하지않고 빈틈없이 잘 감당해 준 아내 광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12월 일

양 춘 요 드림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종말의 개념	4
	제 1 절 종말의 명칭	4
	제 2 절 종말의 의미	5
제 3 장	종말의 근거	6
	제 1 절 구약의 종말관	6
	제 2 절 신약의 종말관	9
	( 1 ) 바울서신에서 나타난 종말론	9
	( 2 )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	10
	( 3 ) 종말과 그리스도	12
제 4 장	정통적 교의학적 견해	16
	제 1 절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종말	16
	제 2 절 성령의 임함과 종말	19
	제 3 절 개인적 종말	20
	( 1 ) 비 성경적 견해	21
	가) 헬라 철학	21
	나) 펠라기안파와 소시니안파	21
	다) 로마 카톨릭	21
	라) 영혼 불멸론	22
	마) 영혼 수면설	25
	바) 멸절설과 조건적 영생설	26
	사) 제 2의 시련설	27
	( 2 ) 성경적 견해	28
	가) 죽음의 의미	28

나) 죽음과 죄와의 관계	29
다) 중간상태	31
라) 죽음의 해결	31
제 5 장 우주적 종말론	32
제 1 절 현재적 종말	32
(1) 종말적 징조	32
(2) 개인의 죽음	33
(3) 이방인의 소명	33
(4) 유태인의 회심	34
(5) 대 배교와 대 환란	34
(6) 적 그리스도의 출현	35
(7) 재림의 양식	36
제 2 절 미래적 종말	36
(1) 그리스도의 재림	37
(2)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와 목적	39
제 6 장 천년설에 대한 개혁파의 입장	39
제 1 절 전 천년설에 대한 비판	39
제 2 절 후 천년설에 대한 비판	40
제 3 절 무 천년설의 입장	42
제 7 장 결 론	44
제 1 절 요약 및 평가	44
제 2 절 제언	44
참고문헌	46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 제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말씀이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sup>1)</sup> 종말에 대한 의문은 과거의 제자들이나 현재의 우리나라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대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삶이 미지수의 삶이며 정확히 보장시켜주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기에 더욱 더 종말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자연계의 사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과연 인간도 다른 사물처럼 출생과 더불어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또한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장되어온 범 우주적 자연계의 마지막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때의 상태 그 이후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수수께끼는 아직 무한히 남아 있다. 그것은 아마 종말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우리가 이 종말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

1) 마24:3

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기에 종말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해 주며 또한 죽음에서의 승리이며 영생의 소망을 안겨다 준 사건이다.<sup>2)</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로서 죄와 악은 정복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유 가운데에 드러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잘못 이해로 방황과 과오를 범하여 비참 가운데 빠졌는가?

세대주의자들과 신비체험주의자들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함으로써 시한부 재림설을 주장하여 교회의 정상적 신앙을 흔들며 많은 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sup>3)</sup>

교회에 들어온 비 성경적 종말론이 교회의 성장을 약화 시켰으며 종말의 종국적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도래에 대해 많은 장애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에 젖은 인간적 신앙의 출발점으로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성경 해석상의 올바른 진의를 깨달지 못하게 한 무지의 소치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2) 정민천, *성서대백과* (서울: 기독교서사, 1987), 제7권. p. 517.

3) 정력봉, *시한부 재림설을 경계하라* (서울: 동서남북, 1991), pp. 10~11.



종말 사상이 잘못되면 신앙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동시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못하게 된다. 세상을 도외시하여 성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도 파괴된다.

한곳에 치우친 신학사상으로 그들의 신앙 또한 한곳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다른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잘못된 종말사상은 개인의 인격을 파괴했고, 그의 가정을 분리시키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를 몰고왔다. 그러므로 종말론 연구는 더욱 더 절실하며 필요하다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향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종말론 사상이다. 본 연구를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한 것은 개혁주의는 곧 성경주의라 생각하는 동시에 개혁주의가 역사적 정통과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종말에 대해 성경 신. 구약의 전반의 흐름과 종말론의 여러 학설을 파악하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과의 관계성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인간 중심적, 물질적, 세상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마음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참 진리를 발견하고 종말에 입각한 교회의 올바른 소망과 사명을 알고자하며 비 진리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함이다.

## 제 2 장 종말의 개념

### 제 1 절 종말의 명칭

종말론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De Nouissimis” 또는 Eschatology”이다. 카이퍼는 “Consummatione Saecul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말론”이란 명칭은 “말날들”(ερχαταλ ημεραλ, 사 2:2, 미 4:1), “말세”(εσχατου των χρονων, 벧전 1:20), “마지막 때”(εσχατη ωρα, 요일 2:18)를 말하는 성구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sup>4)</sup> 특별히 인간과 세상의 마지막을 논하는 이론, 곧 개인들의 죽음 후의 일들, 현재의 조직과 제

---

4) 고명번. *별집 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사, 1991), 47권. p. 18.

도가 끝난 후의 인간의 역사에 대한 것들이다. 그리하여 종말론에는 이 세대가 끝난 후의 일, 곧 심판 날, 주님의 재림, 부활, 천년 왕국 영원한 세계의 상태 등이 포함 된다. 성서 전체에 걸쳐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보여 주며 따라서 그 역사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5)

## 제 2 절 종말의 의미

세계와 그 역사의 종말은 그 완성이며 새 역사이다. 여기에서 새 역사란 재래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시간과 영원이 통합하기 때문이다. 시간과 영원이 통합된 상태는 시간이 정지된 상태이며 그 상태에 대해서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새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계속 되는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6)

종말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의미한다. 구약에서의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나라 왕국의 건설이며, 신약에서는 좀더 나아가 심판과 멸망에 이어진 인생의 궁극적 구원을 의미한다.

---

5) 정인찬, 성서대백과, op. cit., pp. 516~517.

6) 서철원, 강의 논문집, p. 6.

### 제 3 장 종말의 근거

#### 제 1 절 구약의 종말관

종말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것이며 드디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굳게 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역사 완성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성취되는 때나 방법을 인간이 계산해 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와의 도래이다. 여호와와는 기적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실현된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사를 유추해 내어 말세의 최종적 구원을 묘사하였다.<sup>7)</sup>

조지 래드 (George Ladd) 교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종말론적 소망이며 따라서 종말론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신관과도 일치하고 있다”<sup>8)</sup>고 하였다.

브라이젠 (T. C. Vriezen) 교수는 “종말론이란 이스라

---

7) 정인찬, *성서대백과*, op. cit., p. 518.

8) G. E. Ladd, *Presence*, p. 52.

엘 구원 역사 속에 뿌리를 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종교적 확실성인 것이다.<sup>9)</sup>라고 하였다.

구약에 흐르는 계시적 종말 사상 중 하나는 장차 오실 구속자에 대한 대망 사상이다. 이와같은 메시아 소망은 구약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라는 예언 속에서 이미 장차 구속자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장차 계속될 모든 구속의 역사는 이미 이 여인의 약속 속에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모든 구약의 계시는 앞을 향하고 있다. 결국 약속된 구속자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왕정 정치제도를 수립한 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특별한 직분들을 인정하게 되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이었다. 장차 오실 구속자는 이상의 세가지 직분의 완성된 화신으로 기대되었다.<sup>11)</sup>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는 제사장에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왕에게 적용되었다.

---

9) T. C. Vriezen,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2nd ed, trans. Neuijen (Oxford: Blackwell, 1970), p. 458.

10) 안토A. 후크마, *기독교의 종말론* (류효준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6.

11) 안토A. 후크마, *기독교의 종말론* (류효준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16.

유대인의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뚜렷한 영향을 남긴 것은 왕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다. 성령으로 임직되는 것의 상징인 기름부음의 의식으로써 왕은 성별된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이후 메시아는 다윗 왕조로 고정되었고 그 이후 유동적인 메시아 사고는 한 인물로 가리키게 되어 신약시대 교회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시켰다. 12) 또한 이 메시아는 이사야 7 : 14 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로 구속의 대 사역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으킬 것을 말씀하였다. 또 이사야 53 장은 장차 오실 구속자를 여호와와의 고난받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 13)

메시아의 또 하나의 명칭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 구속자 대망사상은 인자란 용어를 통해 다니엘 7 : 13 에 표현되고 있다. 신약에 있어서 인자는 메시아와 동일시 되고있다. 이 인자는 바로 구약의 계시적 요소인 하나님의 왕국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14)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적 성향 중 하나는 “새 언약” 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15)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죄로 물들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

---

12) 정인찬, 성서대역자, op. cit., p. 520.

13) 안토A, 후크마, op. cit., p. 16.

14) Ibid, pp. 17~18.

15) Ibid.

아오라고 호소되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구약의 종말론 사상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태동되었다. 아마 선지자들이 가졌던 윤리적 관심의 가장 중요한 결과란 종말론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믿고 정결케된 남은 자라는 선지자들의 확신이 있었다. 16)

요엘서에는 “성령의 부으심”과 “주의 날”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원수를 파괴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미래의 날이다.

스바냐서는 이 주의 날을 분노의 날로써 요엘서를 보충하고 있으며 말라기서는 이 주의 날을 희망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구약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덧없음을 발견하고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종말론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부패된 삶과 고통을 주는 세상이 청산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주시리라는 소망이 있었다. 18)

## 은 제 2 절 신약의 종말관

### ( 1 )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종말

바울은 성령을 통한 인생의 변화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

16) Ladd, Presence, p. 72.

17) 안토니A. 후크마, op. cit., pp. 20~23.

18) Ibid., p. 84.

가 됨으로써 종말적 사상을 나타내 주었다. 19)

데살로니가전. 후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로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부활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악인은 갑작스러운 멸망이 도래될 것을 말한다.

간절히 기다림 속에 오신 주님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되겠지만 악인에게 있어서는 강도같이, 도적같이 임하는 저주의 재림이 될 것이다.

천년 왕국과 휴거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떠한 가시적 천년왕국의 도래를 통한 불신자의 심판의 유보를 허락지 않으신다.

휴거는 인류의 부활을 의미하며 또 다른 사건으로서의 휴거는 인정치 않고 그가 오실 때 전 인류는 단 일회적으로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서 2장에서도 바울은 전 인류에게 정죄되는 심판은 동시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20)

바울 서신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며 또한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보증하신다. 21)

## (2)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

---

19) 안토A. 후크마, op. cit., p. 84.

20) W. J. 그리어, 성경적 종말론 연구(이종전역, 서울:예루살렘, 1991), p. 35.

21) 후크마, op. cit., pp. 80~96.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세가지 일을 쓰라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다.

첫째는 “내가 본것”인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환영이었다.

둘째는 “이제 있는 일”인데 이것은 그때에 있던 일곱 교회와 온 세대의 교회들이다.

셋째는 “장차 될 일”들에 대해 기록 한 것이다 <sup>22)</sup>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희망과 대 단원을 약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의 현재 삶 속에서의 싸움에 관한 교훈으로 꽉 차 있다. 계시록은 크리스천에게 용감하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이미 받은 속죄함을 생각하며 지금도 정복하고 있는 어린양이 보좌에 계신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도록 격려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과 현재 이루시고 계신 것에 대한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sup>23)</sup>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의 책이다. 그 가운데는 교훈적인 서술이라 불리우는 구절도 있다. 예를 들면 재림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억지로 맞추고자 하면 분명히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많은 벽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기호로 숫자로 씌어져 있으며 많은 경

---

22) 정명호, *세상 종말과 성도의 사명* (서울: 한국 교회협력출판사, 1987), p. 64.

23) W. J. 그리어, *성경적 종말론 연구*, op. cit., p. 92.

우 환상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계시록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들과 일치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재림에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다. <sup>24)</sup>

### ( 3 ) 종말과 그리스도

종말론은 그리스도에게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창조와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세계 역사를 종결한다.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다. 즉 그리스도는 역사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그리스도에게서 기독교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sup>25)</sup>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에 대한 구약적 언약의 성취이다. 이 성취는 아직 미래사인 최종적 완성을 기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은 “실현된” ( R e a l i z e d ) 종말론이라고 칭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실현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적 실현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사건은 아직 미래사이다. 히브리서 ( 히 1 : 2 ) 기자에 의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날” ( l a s t d a y s ) 이 여기에 실현된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 ( 율 2 : 28 )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성취되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미 “내세의 능력” ( 히 6 : 5 ) 을 맛 보

---

24) Ibid., pp. 94~98.

25) 서철원, op. cit., p. 9.

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은 단순히 미래적 사건에 대한 소망이 아니다. 이 소망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체가 된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특히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소망이 재림시에 절정에 이르고 완성되는 것이다. <sup>26)</sup> 이와같이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세상이 완성될 때는 은혜가 자연의 질서로 통합된다고 말한다. 은혜와 자연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다. 그래서 구속의 형태가 소멸되지 않고 소산되지 않는다. <sup>27)</sup>

신약시대에 와서 종말의 가장 중요한 신호는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위에 내리신 성령의 강림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표시로 내려졌던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이며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등은 종말론적인 의미이다. 종말에 이스라엘이나 인간 모두에게 일어날 것에 관하여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이미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서 발생했다. <sup>28)</sup>

이렇게 종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진다 할

---

26) 정연찬, *성서대백과*, op. cit., p. 524.

27) 서철원, op. cit., p. 10.

28) W. Manson, "Eschatology in the New Testamen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Occasional papers*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p. 6.

때, 예수님의 행하심의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즉 구속사역과 성령등은 “이미” 성취된 종말이요, 그 분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신 일들에 대하여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종말”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오스카쿨만 (Oscar Cullmann)은 이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요소란 종말론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이 다시 말해서 결정적으로 “이미 성취됨”과 “아직 성취되지 아니함”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감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요소라고 하였다.”<sup>29)</sup>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위대한 종말론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역사의 최종적 완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면, 첫째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한 위대한 종말론적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sup>30)</sup>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수많은 자세한 기록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사건들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는 구약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는 구약의 저자들이 하나의 운동과정으로 묘사했던 내용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두 단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 두 단계는 현재적 메시아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이다.<sup>31)</sup>

신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되어 그 예언대로 새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 새 시대가 장차 올 또

---

29) O. Cullmann, *Salvation, op. cit.*, p. 172.

30) 안토니아 후크바, *op. cit.*, p. 28.

31) *Ibid.* p. 31.

다른 시대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장차 올 세상을 “저 세상” “내세” 그리고 “오는 세상” 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내세의 능력들” (히 6 : 5) 에 대해 기록 하였고 에베소서 2 : 7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 하였고 더 나아가 “말세” 와 세상 끝에” 라는 용어에서 장차 미래의 시대에 대한 절정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sup>32)</sup>

셋째는 두 종말론적 국면들 사이의 관계성은 현 시대의 축복들이 장차 올 더 크나 큰 축복들에 대한 보증이며 담보물이라는 것으로 규명되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축복으로 하여금 신자들은 더 큰 소망을 갖게 한다. <sup>33)</sup>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세계의 역사의 중심점이 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도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 되어진다. <sup>34)</sup> 그러므로 종말의 처음과 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역사 되어진다. <sup>35)</sup>

---

32) Ibid. pp. 31~34.

33) Ibid.

34) Ibid. p. 47.

35) Ibid.

복음의 시대와 다가올 시대의 양자의 사이의 경계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의 날”이며 그리스도는 그 때 죄악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고 보응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세상을 의로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36)

#### 제 4 장 정통적 교의학적 견해

##### 제 1 절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종말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사도들의 전도와 가르침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구약시대의 교인이 바라고 기대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였으며 이런 기대는 특히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자의 미래의 나타나심과 연결 되어진다. 43)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신약에서 관주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전 메시지는 종말론의 전 영역에 포함되어 질 수 있다. 38)

---

36) W. J. 리어, *op. cit.*, pp. 56~60.

37) 안토니우스, *op. cit.*, p. 62.

38) Ladd, *op. cit.*, pp. 325~326.

신약을 열어보면 우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된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 3 : 2) 고 말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세례요한은 “오실 자로서 지칭된 메시야에 의해 시작되어지는 이 왕국의 도래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요한은 오실 자의 사명을 기본적으로 분리의 사명으로 보았다. 즉 회개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사명을 말한다. 사실 요한은 “메시야의 이중적 사역이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했었다.”<sup>39)</sup>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요한의 말과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전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 : 15) 그러나 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아 보일지라도 이 두 메시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열쇠가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 진다. 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실 자의 인격으로 곧 도래하려 한다고 말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때가 지금 찼고 (눅 4 : 21), 그 왕국은 지금 그 자신의 인격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

---

39) Ibid., p. 108.

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도록 연관되어진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기적, 비유,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40)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동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통치사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를 그가 통치하시며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하나님의 왕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단어 자체의 충만한 의미로 볼 때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구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 3 : 17)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표징은 “귀신들을 쫓아내심”과 “사단이 떨어짐”과 기적들이 일어남이다. 천국의 임재의 또 다른 표징은 복음의 전파와 죄사함의 부여이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미 나타나셨다. 43)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왕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왕

---

40) 후크바, op. cit., pp. 63~79.

41) Ibid.

42) Ibid.

43) Ibid.



국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며 또한 전적 헌신을 요청한다. 44

하나님의 왕국의 현존이 던져주는 의미 중 하나는 우주적 구속이다 바로 전 우주의 갱신이다. 그러므로 이 왕국에 속한 자는 왕국이 추구하는 갱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5)

## 제 2 절 성령의 임함과 종말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세상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즉 최종적 종말까지는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구약에서는 세가지로 성령을 종말론과 연결하고 있다. 그 첫째는 구약은 성령을 어떤 예언적 징표들을 수반하는 최종적 종말론적 세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 성령은 장차 오실 구속자 위에 강림하며 그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채워주실 분으로 구약을 말한다. 셋째, 성령은 물질적 축복들과 윤리적 재생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미래적 새 생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다. 46)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지막 날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암시

---

44) Ibid.

45) Ibid.

46) Ibid., pp. 80~82.

에서 성령이 교회안에 임재하여 종말론적 “새 시대”의 막을 올렸다 볼 수 있다. 성령을 받음으로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받게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구원”이라는 놀라운 종말론적 은혜를 받는다.

바울은 성령을 “첫 열매” (고후 1 : 22)로 부른다. 바울은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그것은 종말론의 실현인 동시에 종말론의 재확인이다. 바로 바울이 *arrabon*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의 의미는 더 풍성하다. 성령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미래의 환희의 일부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 일부분은 아직도 미래적이며 아직도 소유되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신 시켜 준다.

47) 성령의 충만함과 소유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 있는 우리는 장차 올 세대의 축복들을 우선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이다. 48)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임하심은 현재적으로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그 자체로 종말의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 제 3 절 개인적 종말

---

47) C. K. Barrett, *The Holy Spirit and the Gospel Tradition* (N. Y. : Macmillan, 1947), p. 153.

48) 후크마, *op. cit.*, p. 96.

## ( 1 ) 비 성경적 종말

### 가)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 몸 ( 육체 ) 이 아니라 지성적인 영혼만이 불멸이라고 말한다. <sup>49)</sup>

### 나) 펠라기안파와 소시니안파

이들에 의하면 사람은 본래 가시적으로 죽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내에 죽음이 포함된다. 죄지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죽는 형질로 창조되었다. 그러니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멸의 법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죽도록 운명지어졌다. <sup>50)</sup>

지금 현상만 살펴보면 사실 죽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는가? 죽지 않을 생물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다 가시적이다 현상만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죽음이 처음부터 사람의 형상 구조에 본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시적이 된 것은 죄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로 온 것이라고 진술한다. <sup>51)</sup>

### 다) 로마 카톨릭

---

49) 서철원, 강의 논문집 (서울:기독교신학연구원, 1990), pp. 12~13.

50) Ibid.

51) Ibid.

로마교회는 영혼의 불멸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형상에 넣어서 처음부터 몸의 불가시성을 말한다. 52)

#### 라) 영혼의 불멸론

영혼불멸 개념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할 때까지 이성애 의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칸트마저도 실천이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선결조건으로서 영혼불멸 개념을 지지했다. 53)

영혼불멸 개념은 고대 헬라의 신비종교들 속에서 발전되었으며 플라톤의 저서들을 통해 확립되어 졌다. 그는 대화록에서 특별히 *phaedo*에서 육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54) 플라톤의 견해에 있어서, 영혼불멸 사상은 합치누의적 형이상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은 실제적이며,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것은 모두 저질의 종류의 실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본질적으로 파괴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불멸한 우수의 본체로 생각되어 진다. 반면에 육체는 열등한 본체로서 죽어야 할 운명을 지나고 있고 따라서 완전히 파괴되어져야 할 실체이다. 이런 이유에서 육체는 영혼을 위한 무덤으로 생각되어지며 영혼은 실제로 육체가 없다면 한층 더 좋은 상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체

---

52) Ibid.

53) 후크버, *op. cit.*, p. 121.

54) Ibid., p. 122.

계 속에서는 육체부활 교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sup>55)</sup>

몇몇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영혼불멸”이란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변형해 왔다. 존 칼빈은 아담이 불멸의 영혼을 가졌었다고 가르치면서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불멸성은 영혼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영혼에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 <sup>56)</sup>

알키발드 알렉산더 핫지도 영혼불멸의 교리를 변형하는 수많은 주장을 했고, 윌리엄 웨드도 영혼불멸의 교리는 신약과 구약의 핵심사상 중의 특성이라고 했다. 루이스 벌코프도 영혼불멸론을 지지하기 위해 일반계시와 성경으로부터 다양한 논증들을 제시하였다. <sup>57)</sup>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나 벌카우워는 성경은 이 영혼불멸에 대해 관심이없고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sup>58)</sup>

이런 여러가지 개혁자들의 주장 속에서 영혼불멸에 대해 몇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성경은 “영혼불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sup>59)</sup>

둘째, 성경은 영혼이 본래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본체이기 때문에 영혼의 계속적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

55) Ibid.

56) Ibid.

57) Ibid.

58) Ibid.

59) Ibid.

의해 창조되었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이 존재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인간 속에는 어떠한 류의 본래적인 것도 있지 않고 혹시 인간을 불멸의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측면 속에서도 본래적인 것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sup>60)</sup>

셋째, 성경은 죽음 후에 단순히 계속되는 존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죽음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만이 진정한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애매케 하는, 혹은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진리를 부정하는 식의 “영혼불멸”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며 경고하고 있다. <sup>61)</sup>

네째, 인간의 미래에 관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중심적 메시지는 육체의 부활이다. 성경에 의하면 육체도 영혼만큼 실질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전체성으로 창조하셨다. 육체가 영혼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도 않으며 인간의 참된 실존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삼위일체 중 제 2위인 성자는

---

60) Ibid.

61) Ibid.

결코 참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참 인간성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육체는 결코 영혼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육체를 떠나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미래적 축복은 그들의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상의 풍요한 상태로서의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sup>62)</sup>

#### 마) 영혼 수면설

##### A) 견해

재세례파와 럿셀파들은 사후에 영혼이 계속 존재하되 무의식적인 안면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표현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죽으면 일단 의식활동이 끝나고 부활때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말을 한다 <sup>63)</sup>

##### B) 비판

성경의 잠잔다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 산자들의 편에서 보면 잠자는 것같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성경은 영혼이나 육체가 사후에 잠잔다고 한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잠자는 사람의 무의식, 무활동 상태인 점이 죽은 사람이 현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

62) Ibid.

63) **백문**, 조석선역, op. cit., pp. 63~64.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잔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실제로 수면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영혼이 수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서 계속하여 의식적 생활을 누린다고 한다. <sup>63)</sup>

## 바) 멸절설과 조건 영생설

### A. 견해

멸절설은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인은 그 불멸성을 박탈당하여 사후에 의식적 실존을 누릴 수 없는 궁극적인 파멸에 이르니 곧 죽음은 무오 돌아가는 것이다. <sup>64)</sup>

조건적 영생설은 본래 우리가 불사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불사성을 예수 믿음으로 그 공로로 얻은 것이다. 그러니 까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다. 죽으면 끝난다는 이 교리는 널리 퍼지면 불신자들이 좋아한다. <sup>65)</sup>

### B. 비판

영생의 성경은 불멸만이 아니다. 영생의 불멸성과는 다른 더 크고 풍부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모르는 소치이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영벌이 있다. 선인은 상을, 악인은 벌

---

63) Ibid., pp. 64~66.

64) Ibid., pp. 66~67.

65) Ibid.



을 받아야 한다. 멸절설은 이것을 무시하기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를 헛되게 하시지 않으시고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어 목적을 이루신다. <sup>66)</sup>

#### 사) 제 2의 시련설

##### A. 견해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죽은 후에도 중간 상태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수를 알고 영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사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은 한사코 거절할 때만 정죄되는 것이다. 인간의 영원한 상태가 죽음과 부활의 중간기에서 취한 태도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지 심판의 날까지 변경될 수 없을 만큼 고정된 것은 아니다. <sup>67)</sup>

##### B. 비판

죽은 자의 운명은 변경될 수 없다. 지옥에서도 천국에 올라갈 기회가 있다는 이 주장은 연옥설보다 더욱 악하다.

복음의 권세는 현생에서 택자를 능히 구원시킨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어서 구원할 자를 능히 현세에서 다 구원하신다. <sup>68)</sup>

---

66) Ibid., pp. 68~70.

67) Ibid., pp. 70~72

68) 서철원, op. cit., pp. 35~36.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떠도는 영은 바로 악한 영으로서 허락된 활동을 하지만 죽은 자의 영혼은 분명히 처소가 결정되어있다. 죽은 자는 자기 처소를 이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9)

## ( 2 ) 성경적 견해

### 가) 죽음의 의미

누구나 죽기 싫어하며 영구히 살기를 소원하고 죽어도 다음 세상을 기다린다. 사람들은 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죽는 줄 안다. 사람들은 죽기 싫어하고 다음 세상을 기대한다. 70)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죄의 억제 방편이다. 죽음이 없으면 담대해져서 범죄가 더욱 가중된다.

둘째, 성화의 종결이다.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다. 아무리 죄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못 짓는다. 성화의 완성은 영화이며 부활때 되어진다.

셋째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의식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살게한다.

---

69) Ibid.

70) Ibid., pp. 17~20.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식으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한다. <sup>91)</sup>

죽음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며 죄 짓는 날을 끝내게하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sup>92)</sup>

#### 나) 죽음과 죄와의 관계

사람의 모든 삶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성경은 타락된 인간을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간의 삶의 기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미로는 생명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을 새롭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 : 17) 고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다. <sup>93)</sup>

인간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 인간성은 그가 마치 자기의 삶에 대한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신의 수중에서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 첫 아담의 반항속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아담에 의한 화해 속에서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순종할 때나 불 순종할 때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삶을 지탱해

---

71) Ibid.

72) 후크마, op. cit., p. 119.

73) 조석만, 조적선학 (서울: 지혜문화사, 1986), pp. 412~414.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닐 수도 비 존재일 수도 없는 것이다. 74)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이 삶에는 끝이 없다. 잘되거나 나쁘게 되거나 영원히 지속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처음에는 바른 방향으로 향하였는데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여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든가 둘 중 어느 쪽이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속죄적 사역에 의하여 인간의 삶은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의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75)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인간의 삶의 기원과 연속성과 영원한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삶은 처음에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주어졌으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 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재 창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신자의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다. 76)

창조의 시점에서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죽을 필요는 없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결과일 뿐이다.

---

74) *ibid.*

75) *Ibid.*

76) *Ibid.*

이 가능성은 죄에 의하여 현실적인 것이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성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77)

왜 사람은 죽는 것인가? 몇가지 학설을 살펴 보고자 한다.

#### 다) 중간상태

중간상태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8)

어거스틴 이후로 중간상태는 신학자들의 관심이 되어 여러 학설이 나오게 되었다.

#### 라) 죽음의 해결

신자들은 주님과 의 신비적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의 통로를 거쳐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과 같이 신자들도 역시 성화를 통해서만 그들의 영원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 죽음은 종종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의 최고 시험이며, 종종 외관상의 패배의 시간에 승리를 의식하는 눈부신 현현을 불러내는 것이다. (벧전 4 : 1 2, 1 3) 죽음은 신자들의 영혼들의 성화를 완성하며 따라서 그들은 즉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다. (히 1 2 : 2 3, 계 2 1 : 2 7) 죽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활의 시작이다. 79) 그들은 사망의 쏘는 것이

---

77) Ibid.

78) 서철원, *op. cit.*, p. 31.

79) 백남, 조석선, *op. cit.*, p. 28.

제거되었으며 (고전 15 : 55) 또한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에 들어간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잠들며 (살후 1 : 7) 또한 그들의 육신들도 마침내 죽음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롬 8 : 11) 예수님은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다. <sup>80)</sup> 우리의 죽음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된 인생이요 축복받은 영혼이다.

## 제 5 장 우주적 종말론

### 제 1 절 현재적 종말

#### ( 1 ) 종말적 징조

때의 징조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다. 주님의 재림전 이 세상에 일어 날 때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신자를 미혹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겠고 지진과 하늘이 진동할 것이며 기근과 역병 (마 24 : 7) 이 있겠고 사랑이 식어진다. (마 24 : 12) 그러나 시대의 징조는 마지막 때 마지막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sup>80)</sup> 현재적 징조이다. 전자에 말한 그러한 사건은 언제고 일어나며 그러한 징조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주님의 날이 가까울 수록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sup>81)</sup>

80) Ibid., p. 29.

81) 조석만, op. cit., pp. 421~423.

## ( 2 ) 개인의 죽음

개인의 육체적 죽음은 몸이 그 화학적 요소 들로 분해되는 것이 뒤 따르는 몸과 영혼 사이의 인격적 연합의 중지 그리고 영혼이 그 창조주와 심판주에 의해 그것에 할당된 존재의 구별된 상태로 도입되는 것이다. <sup>82)</sup> 즉 죽음은 영혼과 신체가 갈라지는 것이다.

죽음은 신체와 영혼의 분리로 말미암아 육체적 생명의 종결이다. 그러나 죽음은 존재의 중지가 아니라 생의 자연적 관계에서의 분리를 의미하며 <sup>83)</sup> 삶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근거한 생명의 삶이며 죽음은 그 배반 행위이다. 죽음으로 개인은 자신의 종말을 맞보는 것이며 선, 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 ( 3 ) 이방인의 소명

신약 성경의 몇 귀절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국가 들에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마 24 : 14 , 막 13 : 10 , 롬 11 : 25 ) 많은 귀절들이 이방인의 상당한 수가 새 세대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마 8 : 11 , 13 : 32 , 눅 2 : 32 , 행 15 : 14 , 롬 9 : 24 ~ 26 , 엡 2 : 11 ~ 20 등 ) 이 귀절들은 분명히 모든 국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역사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sup>84)</sup>

복음은 은혜의 문이 닫히지기 전에 분명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

82) 하지, 조적신학, op. cit., p. 180.

83) 서철원, op. cit., p. 11.

84) 뵈름, op. cit., p. 84.

것이다. 85)

#### (4) 유태인의 회심

주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의 회심을 전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때 나라를 이루면서 페시아를 영접해 드린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전체적인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 민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말한다. 86)

#### (5) 대 배교와 대환란

배도는 어떤 한 사람이 타락하고 몇몇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는 뜻이다. 오늘날 어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헬라 *apostasia*란 단어는 *aphistemi*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는 자동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떨어져 나가다,” 혹은 “배신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데살로니가후서 2:3에서 사용된 용례처럼 *apostasia*의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바로 그 배도, 혹은 그 배반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세상 끝날 바로 직전에 있게 될 배도가 최후적이며 최고의

---

85) 르네파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경옥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3), p. 48.

86) 벨콕, *op. cit.*, p. 84.



결정적배도사건이 이미 그 때까지 계속 있어왔던 배도와 배반의 심화된 완성체라는 점이다. 87) 이렇게 불법과 배도가 있을때 큰 환난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과 자진, 기근, 전쟁등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게한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솔한 사람을 미궁에 빠뜨릴 것이고 의인들을 박해하여 참된 교회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7년 환난은재림 직전의 큰 핍박을 말한다. 교회는 이 환난을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한다. 교회가 존속할 수 없을만큼 잔해를 입는다. 종말의 징조와 심판의 예고로서 앞서 일을 표적과 기사들은 성도에게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불신자들에게는 신진 세력의 출현을 대망케 한다. 그 고난들은 고난의 시작으로서 우주를 재생으로 이끈다. 88)

#### ( 6 )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필연적인 역사 발전의 귀결이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과학문명, 기술발달로 인하여 적그리스도 출현이 가능해진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종교의 전 권력을 한꺼번에 장악한다. 89)

적그리스도의 출현시는 전 민족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여 지상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를 박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

---

87) 후크마, op. cit., p. 214.

88) 서철원, op. cit., p. 50.

89) Ibid., p. 51.

민족, 전 세계 종족이다 힘을 합해서 기독교 세계를 박멸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며 놓여난 것이다. 90)

적 그리스도는 거짓스러운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인한 자이다. 적 그리스도는 진리의 탈을 쓰고 진리속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지위를 탈취하려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임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91)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사람이며 혼란이 아니라 최고의 질서와 조화로서 지배되는 미래를 건설해 나아가는 데에 협력하는 사람인 것이다. 92)

#### ( 7 ) 재림의 모습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재생으로서 인격적 강림이 될 것이다. 또한 재림은 육체적 강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림은 가시적 강림이며 돌연적인 강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림은 영광스럽고 슬리적인 강림이 될 것이다 94)

#### 제 2 절 미래적 종말

---

90) 조석면, 조적선학, op. cit., pp. 425~426.

91) Ibid.

92) 백준, 조적선학, op. cit., pp. 97~101.

### ( 1 )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최후의 심판으로 절정에 이르는 “이 세대,, 는 끝날 것이고 “내세,, 에서 의인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sup>93)</sup>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아포칼롭시스,, 로 묘사되는데 그뜻은 “계시,, 혹은 “베일을 벗김,, 이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나타낸다. (고전 1 : 7, 살후 1 : 7, 뵤전 1 : 7, 13, 4 : 13) <sup>94)</sup>

두번째 용어는 “에피파네이아,, 이다. 그리스도께서 숨겨짐 배경으로부터 풍성한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용어는 “에피파네이아” 이다.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배경으로 부터 풍성한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살후 2 : 8, 뵤전 6 : 14, 뵤후 4 : 1 ; 8, 뵤 2 : 13) <sup>95)</sup>

세번째 용어는 “파루시아” 이다, 문자적으로 임재라는 뜻이다. 이것은 임재하기 전에 오거나 또는 임재의 결과로 오는 것을 가르킨다 (마 24 : 3 : 27 ; 37, 고전 15 : 23, 살전 2 : 19, 등) <sup>96)</sup>

재림은 부활과 승천처럼 한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상을 향한 역사의 “경향” 이 아니다. 부활과 승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백성” 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셔서 음식을 나누

---

93) 정인찬, 성서대백과, op. cit., p. 528.

94) 뵤콕, 조적신학, op. cit., p. 79.

95) Ibid.

96) Ibid.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그러나 재림의 경우는 다르다. 그 사건은 명백히 공개된 사건이 될 것이다. 97)

성경에는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했다. 98)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은 인격적인 사건이다. 갈릴리와 유다에서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께신 곳에 있게하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99)

그리스도가 두번째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 지난 후 종말의 때가되고 그가 다시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미래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교회에 함께 계신다. 재림의 때는 현재보다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며 그 임재는 신앙에 의해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100)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며 그때 누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누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인가, 누가 믿고 있었으며, 누가 믿지 않았는가 판명될 것이다. 101)

재림의 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옛 현실이 없어지는 것 뿐 아니라 옛 현실의 완성이 현실화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

97) 정인찬, op. cit., p. 529.

98) 계1:9.

99) 정인찬, op. cit., p. 529.

100) W. J. 그리어, 성경적 종말론 연구, op. cit., p. 150. 101) IBid., p. 150.







~6은 후 천년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sup>110)</sup>

## 제 2 절 무천년의 입장

지상적 일천년의 문자적 도래를 믿지않고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이다.

제이 아담스는 이 무천년설을 실현된 천년기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 천년이 천년기론을 배척하는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인데 천년에 국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sup>111)</sup> 둘째,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신적 통치가 천년 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실패로 끝나게 되니 불가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신적인 직접적인 통치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신적 통치가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피조물의 세력에 의해서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어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피조물의 대항에 의해서 중단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천년기는 바르지 않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해서 중단되는 왕권이 아니다. <sup>112)</sup>

셋째,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어서 낙원의 표준에 부착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능가한다.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 그런데 천년기론에 의하면 여기서 살다가 다른데로 옮겼다가 또 다른데로 간다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

110) 후크, op. cit., p. 246.

111) 서철원, op. cit., p. 62~64.

112) Ibid.



창조의 회복이니까 이 회복된 이 장소가 우리가 거한 처소이다. 그런데 장소적 의미는 같으나 모양과 형상은 우리가 상상 못할 신천 신지로 변화게 될 것이다. 113)

---

113) Ibid.

제 1 절 요약 및 평가

지금까지 종말에 대하여 종말은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하여 종말의 의미, 목적, 성경에서 예언된 종말, 여러 확실 죽음과 종말적 현상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이루어 질 세상에 대해 검토 해 보았다.

종말은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며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로 인해 믿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루어 졌으며 불신자는 영벌의 지옥의 심판이라는 놀라운 현실에 도달 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은 일회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며 성경은 무천년적 입장을 표명했다.

제 2 절 제언

종말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 시대에 우리는 아직 도래되지 아니한 완성된 새 창조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우리의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 새 땅이 건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역사가 끝날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더욱 더 환란과 핍박의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해도 그 환란이 주님의 오심의 징조며 새하늘과 새땅이 이루어 질 것임을 인식하고 잘 견뎌 끝까지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 승리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이 성도의 눈물과 땀과 피를 닦아 주실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 참 고 문 헌

1.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역,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2. W. J 그리어. 성경적 종말론 연구, 이종전역, (서울:예루살렘, 1993. 10).
3. 장인찬. 성서대백과, (서울:기독교지혜사, 1987).
4. 장학봉. 시한부 재림설을 경계하라, (서울:동서남북, 1991).
5. 루이스 벨콕. 조직신학, 고영민역, (서울:기독교문서, 1991).
6. 조석만. 조직신학, (서울:지혜문화사, 1986).
7. 서철원. 강의논문집, (서울:개혁주의 신학연구원, 1990).
8. A. 하지. 조직신학, 고영민역, (서울:기독교문서, 1985).
9. SH. 트레비스. 종말론 해설, 김근수역, (서울:기독교문서 선교회, 1988).
10. 퀴스토르프. 칼빈의 종말론, 이희숙역, (서울:성경문화사, 1986).
11. 르네 파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경옥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3).
12. 정영호. 세상종말과 성도의 사명, (서울:한국교회협회출판사, 1987).